

## 연령 증가에 따른 영유아 문제행동 발생율 군집화 연구\*

A Clustering Study of Young Children's Challenging Behaviors and Occurrence Rate through Age 2 to 5\*

유수옥(Soo Ok Yoo)<sup>1)</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anges in the rate of occurrence of challenging behaviors in young children according to their increase in age. The study is based on the responses of teachers in child care centers(N=246). They were asked which 38 types of challenging behavior occur most among ages 2, 3, 4, or 5 in young children's classroom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occurrence rates of young children's challenging behaviors were classified into 5 clusters; decreased(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maintained(Cluster 4), or increased(Cluster 5) according to increases in their respective ages. Second, the behaviors such as throwing tantrums and biting, evident in Cluster 1, decreased very rapidly from a very high occurrence rate by age 3. The classroom culture maladjustment behaviors such as running aimlessly around the classroom and shouting, apparent in Cluster 2, had decreased rapidly from a high occurrence rate by age 4. The intentional classroom disruptive behaviors such as dropping objects to create noise and the peer culture maladjustment behaviors studied in Cluster 3 decreased gradually from a rate of medium occurrence by age 5. These results revealed the discontinuity which a few young children exhibit. Third, hurting others, observed in Cluster 4 maintained a low occurrence rate from age 2 until age 5. Using inappropriate language and threatening others in Cluster 5 increased gradually from a low occurrence at 2 to a high rate of occurrence at age 5.

By carefully examining the change of young children's challenging behaviors on the basis of

---

\* 본 논문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선도(LINC) 사업단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sup>1)</sup>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o Ok Yoo,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 Wanju  
Kun, Jeonbuk 565-701, Korea  
Email : Soook@woosuk.ac.kr

objective data in terms of the continuity/ discontinuity and increased/ decreased rate of diverse challenging behaviors, we will be better able help teachers and parents to plan the instructi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young children's challenging behaviors.

**Keywords** : 문제행동 발생률 (occurrence rate of challenging behaviors), 지속성(continuity), 비지속성(discontinuity), 예방(prevention), 중재(intervention).

## I. 서 론

영유아기는 신체, 운동, 인지, 그리고 정서 발달에서 급격한 발달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특히 최근 많은 영유아들이 가정이 아닌 기관에서, 부모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된다. 가정환경과 다른 사회적 생태 환경인 영유아교육 기관은 영유아에게 좀더 불안과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Corsaro, 1988; Ladd, Herald, & Kochel, 2006). 영유아들이 교실에서 친숙하지 않은 또래 및 다양한 성인과 상호작용하고, 교실 규칙 및 제한을 경험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문제행동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물리적 환경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동, 새로운 기술 습득에 방해되는 행동, 그리고 유아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고 Doss와 Reichle(1991)는 정의하고 있다.

최근 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이 정부와 학계에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 2차 학교 폭력 예방대책(2005~2009년)(2010~2014)(Ministry of Education, 2005, 2010)을 수립하여 학교, 사회,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강조하고 있고, 2013년부터 교직 소양과목으로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강을 통해 예비교원이 학교 폭력의 실체와 원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대응역량을 키우도록 하고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2). 또한 보건 복지부에서 문제 행동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 감소 및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고자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2). 최근 유아 및 아동 관련 학회에서도 학술대회 주제로 문제행동을 자주 다루고 있으며, 영유아 문제행동 관련 연구 논문 편수도 제1차 학교 폭력 예방 대책(2005~2010년)발표 이후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였다(Yoo & Lee, 2012). 이와 같이 학계와 정부가 유아기 문제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 및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가정과 교실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영유아기의 문제행동이 학령기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비행 및 심각한 행동문제, 약물 남용, 실업, 범죄 행위, 그리고 정신병 진단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Campbell, 1995 : Dodge, 1993; Kaiser & Rasminsky, 2003; Kazdin, 1985; Lee & Kang, 1999; Reid & Patterson, 1991).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영유아의 경우, 외현적으로 보이는 문제행동은 만 2세에 정점에 이른 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1995; Campbell, Shaw, & Gilliom, 2000; Campbell, Spieker, Burchinal, &

Poe, 2006; Hartup, 1974; Smith, Calkins, Keane, Anastopoulos, & Shelton, 2004 ; Trembley, 2000). 그러나 위험 수준의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여도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chenbach, Edelbrock과 Howell(1987)이 CBCL (Child Behavior Checklist)을 사용하여 1년 간격으로 문제행동 위험 수준의 4, 5 세유아를 추적 연구 하였을 때, 상관 계수가 .72로 매우 높게 유지되었으며, Keenan과 Wakschlag(2000)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병원에 의뢰된 2세 유아들을 3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우리나라 3-5세 유아의 문제행동을 한국판 CBCL로 연구한 Lee, Shin, Chun과 Park(2004)의 연구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문제행동이 감소하지만 위험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경우는 점차 증가하였고, 동일한 척도로 3-5세 유아를 1년간 추적 연구한 Yune, Oh와 Kang(2011)의 연구에서도 고위험군 유아는 저위험군과 달리 1년 후에도 지속성이 매우 높게 유지되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은 영유아기의 위험 수준의 문제행동은 연령이 증가하여도 감소하지 않고 학령기 초기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Mash와 Wolfe(2002)는 유아기 때부터 시작된 심각한 문제행동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문제보다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2차 학교 폭력 예방 대책(2010~2015년)에서는 학교 폭력의 저연령화 추세에 대처하여 대상을 유아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경미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0).

그러나 동일한 문제행동이라도 누가,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판단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

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연령에서는 일탈된 행동이라고 평가될 수 있으나 다른 연령에서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세의 영아가 잘 걷지 못한다고 염려하는 부모라면 부모 자신이 영아의 신체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1세 영아는 잘 걷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Campbell(2005)은 문제행동을 연령 특징적인 문제행동과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Kwun(2012)도 부모와 교사는 영유아의 문제행동의 정상적인 발달 측면을 이해하여야 하고, 각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발달 과제 및 문제행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유아들이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경우 이러한 행동이 발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연령 특징적인 문제인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행동 인가에 대해 교사 혼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교육 경력이 적은 교사에게는 더욱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교사와 부모의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 판별은 문제행동 예방 및 중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연령에 따른 신체, 지적, 그리고 사회·정서 발달의 변화 양상과 마찬가지로 문제행동의 연령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심각한 위험 수준의 문제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시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경시되거나 혹은 연령 특징적 문제 행동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의 영유아 문제행동 관련 연구 152편을 분석하였을 때, 문제행동은 유아의 내적 요인 및 그리고 내적 요인(108개(41.0%)), 어떤 외적 요인(부모, 교사, 사회적 환경)[132개(50.2%)]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제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유아와 관련된 여러 내·외적 요인과 문제행동 발생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Lee & Yoo, 2012), 연령 증가에 따른 다양한 유아 문제행동들의 지속성 및 비지속성의 변화 양상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아기의 문제행동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 연구에서도 아직까지 한 편도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의 연령 증가에 따른 발생률의 변화, 즉 문제행동의 증가 및 감소, 지속성 및 비지속성을 보이는 유형군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행동의 예방 및 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연령 증가에 따라 어떤 문제행동이 어떻게 변화해 나아가는가를 살펴 볼 수 있는 발달 이정표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문제행동의 조기 발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문제 1> 연령 증가에 따른 영유아 문제행동 발생률 변화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연령 증가에 따른 영유아 문제행동 발생률 변화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북의 C시를 중심으로 인접 도시 및 군의 35개의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교사들에게 좀 더 이해시키고, 성의 있는 답변을 얻고자 연구자가 직접 어린이집들을 방문하여 원장과 주임 교사에게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한 전달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설문지 중에서 질문 문항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충실치 않은 설문지 80여부를 제외한 246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166개(6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법인(61개, 24.8%), 가정(17개, 6.9%), 그리고 국공립(2개, 0.8%) 순이었다. 자격증은 1급이 116명(47.2%), 2급이 100명(40.7%), 3급이 30명(12.2%) 순이었다. 연령은 38세 이상이 80명(32.5%), 32세-38세 72명(29.3%)로 32세 이상이 전체의 61.8%를 차지하였고, 26세-32세 60명(24.4%)이며, 22~25세가 34명(13.8%)으로 가장 낮았다. 경력은 3년 이하가 112명(45.5%), 4~6년 71명(28.9%), 7~10년 33명(13.4%), 11년 이상 30명(12.2%)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2,3년제 대학 100명(41.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4년제 대학 66명(26.8%), 보육교사 교육원 58명(23.6%) 순이었으며 대학원 재학과 졸업은 각각 4명, 13명으로 3.7%, 5.3%이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Essa(2007)의 문제행동 분류에 근거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Essa(2007)는 가정과 교실에서 영유아들이 자주 보이는 문제행동을 공격적·반사회적 행동, 방해 행동, 파괴적 행동, 정서적·의존적 행동, 사회적·교실 활동 기피 행동. 그리고 섭식 행동의 6가지 하위 범주의 4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 유아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춰 연

구하고자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39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1단계**, 한국의 유아교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행동 문항 작성을 위해 한국판 유아 행동 체크리스트(K-CBCL), 한국판 유아 행동 평가 척도(C-TRF), 그리고 우리나라 학회지나 학위 논문에 다루고 있는 영유아기 문제행동 목록들을 살펴보았다.

**2단계**, 작성된 예비 설문지를 만 2, 3, 4, 5세의 다양한 연령을 담당하고 있는 2개 어린이집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Essa(2007)의 41개 문항의 난이도 및 우리나라 유아교실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추가하여야 할 문항이나 제외해도 좋은 문항들을 사전 조사하였다.

**3단계**, 어린이집 교사 경력 6년의 박사과정 학생, 어린이집 원장 2명과 함께 보육교사들이 제안한 추가할 문항과 제외할 문항을 3차례에 걸쳐 의논하였다. 예비 조사에 참가한 교사 및 최근 많은 연구에서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 문제 발생 및 지도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으므로(Kim, 2000; Ko, 2008; Lee, 2007), 이러한 문제의 문항 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단계**,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를 거쳐

선정된 문항을 3명의 유아교육과 및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들과 토론하여 다양한 문제행동 척도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유아교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행동 문항 39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행동 척도와 많은 연구 논문에서 다뤄지지 않고, 유아교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교사들이 제안한 ‘불결한 음식 먹기’를 ‘섭식행동’ 범주에서 제외하고 ‘편식과 과식’을 한 문항으로 병합하여 섭식행동 범주와 대체한 기본생활 습관(안전 포함) 범주에 포함하였다.

**5단계**, 결과적으로, Essa(2007)의 41개 문항 중 유아교실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교사들이 제안한 ‘책 찢기’, ‘화장실 물 마구 내리기’, ‘팬티에 대소변 실수하기’, ‘흐느껴 소리죽여 울기’, ‘불결한 음식 먹기’와 같은 5문항을 제외하고 교사들이 제안한 ‘친구 따돌리기와 협박하기’를 공격적·반사회적 행동 범주에, ‘자위 행동하기’를 정서적·의존적 행동 범주에,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위험한 물건 가지고 놀기’, ‘자기 물건 정리정돈하지 않기’를 섭식행동 범주와 대체한 기본생활 습관(안전 포함) 범주에 추가하였다.

<Table 1> Categories of challenging behaviors and item number

	Sub categories	Item	Item number
1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r	11	1,2,3,4,5,6,7,8,9,10,11.
2	Disruptive behaviors	5	12,13,14,15,16
3	Destructive behaviors	3	17,18,19,
4	Emotional and dependent behaviors	8	20,21,22,23,24,25,26,27,
5	Participation in social and school activities	9	28,29,30,31,32,33,34,35,36,
6	Basic life habit	3	37,38,39.
	Total	39	

6개 하위 유형의 39개 문항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유아 문제행동 설문지의 연령별 신뢰도 계수는 2세 .842, 3세 .859, 4세 .825, 5세 .649로 모든 연령에서 모두 .6이상의 신뢰로운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39개의 문제행동이 각 각 2, 3, 4, 5세 중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SPSS Win 20.0을 사용하여 39개 문항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한 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 분석의 세 가지 기법인 계층적 군집 분석, K-평균 군집 분석, 이단계 군집 분석 중 계층적 군집 분석을 선택한 후 평균 연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령별 군집 평균값들 사이의 차이는 ANOVA를 사용하였다.

군집 분석의 핵심은 군집내의 대상(문제행동)들을 가급적 유사하게, 군집들 간에는 가급적 상이하게 대상(문제행동)들을 집단화하는데 있다. 군집 분석은 자료의 구조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요인 분석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나 요인 분석은 변수들을 집단화하는데 비해 군집 분석은 대상(문제행동)들을 집단화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요인 분석은 자료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유사한 집단으로 분류하지만 군집 분석은 각 대상들이 갖고 있는 값을 거리로 환산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상(문제행동)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Lee & Lim, 2013). 또한 군집 분석은 특정한 이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탐색적인 분석에 가깝다. 즉 대상(문제행동)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자

연스러운’ 군집을 찾고 나아가 자료의 요약을 피하는 기본적인 탐색적인 통계 방법이다. 그러나 군집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각 집단간의 이질성이 나타나야만 한다(Kim, 2010; Sung, 2006).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39개의 문제행동을 5개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첫째**,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행동, 유지되는 행동, 증가하는 행동으로 나눌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장 먼저 3군집으로 유형화하는 탐색을 시도해보았을 때 대부분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집단” 한 군집에 치중되어 다른 2군집의 사례수가 빈약하여 의미있는 설명이 도출되지 않았다.

**둘째**, 다시 4군집으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을 때, 공격적·반사회적 행동범주의 10번 “교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기” 문항이 단독으로 한 개의 군집을 구성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5군집, 6군집으로 탐색을 시도하였을 때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이 문항을 제거하고 나머지 문항 38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5군집으로 시도하였을 때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집단의 이질성이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군집’들이 형성되었고, 의미있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 III. 결과분석

### 1. 연령 증가에 따른 영유아 문제행동 발생률 변화 유형

연령 증가에 따른 영유아 문제행동 발생률 변

화 유형은 응답수의 군집 평균값을 구하여 Table 2로 제시한 후, 이를 Figure 1로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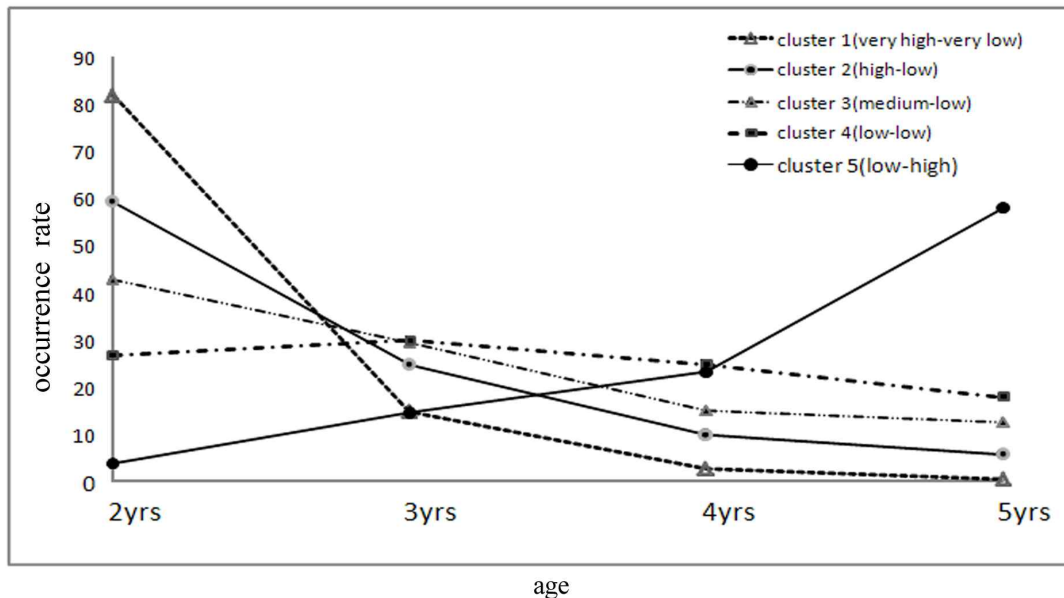
위의 Table 2에서와 같이, 영유아 문제행동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군집, 비교적 유지되는 군집, 증가하는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유형에는, 매우 높은 발생률에서 매우 급격히 감소하는 군집 1, 높은 발생률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군집 2, 중간 정도의 발생률에서 점진적으로 감소를 보

이는 군집 3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낮은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군집 4와 낮은 발생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5세에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군집 5를 포함하여 총 5군집으로 구분되었다.

Figure 1에서와 같이, 교사들의 응답에 의하면 군집 1, 2, 3은 2세를 정점으로 급격히 혹은 점진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2세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인 군집 1은 3세에 이르러 매우

<Table 2> Clustering mean of challenging behaviors of young children by age

Type	Cluster	2 yrs.	3 yrs.	4 yrs.	5 yrs.
Decrease	Cluster 1 (very high → very low)	81.9	14.9	2.7	0.5
	Cluster 2 (high → low)	59.4	24.8	15.2	5.8
	Cluster 3 (middle → low)	42.8	29.5	15.1	12.6
Maintain	Cluster 4 (low → low)	26.9	30.0	25.0	18.1
Increase	Cluster 5 (very low → high)	3.9	14.6	23.3	58.2



<Figure 1> Clustering types of challenging behaviors of young children by age

<Table 3> Cluster mean of difference verification ANOVA by age

Age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2	Model	19,663.163	4	4,915.791	343.107***
	Error	472.800	33	14.327	
	Total	20,135.963	37		
3	Model	1,279.990	4	319.997	14.547***
	Error	725.914	33	21.997	
	Total	2,005.903	37		
4	Model	1630.408	4	407.602	74.827***
	Error	179.760	33	5.447	
	Total	1,810.168	37		
5	Model	119611.808	4	2,990.452	154.674***
	Error	638.020	33	19.334	
	Total	12,599.829	37		

\*\*\* $p < .001$ .

<Table 4 > Cluster 1 : Decreased very rapidly from very high occurrence rate

N(%)

Item	Behaviors	2 yrs.	3 yrs.	4 yrs.	5 yrs.
26	Thumb-sucking	217 (88.6)	25 (10.2)	3 (1.2)	0 (0.0)
36	Short attention span	212 (86.2)	25 (10.2)	7 (2.8)	2 (0.8)
22	Throwing tantrum	198 (81.5)	39 (16.0)	3 (1.2)	3 (1.2)
2	.Biting	197 (80.1)	44 (17.9)	5 (2.0)	0 (0.0)
20	Crying	196 (78.7)	45 (18.1)	7 (2.8)	1 (0.4)
24	Clinging	188 (76.4)	42 (17.1)	15 (6.1)	1 (0.4)
		1208 (81.9)	220 (14.9)	40 (2.7)	7 (0.5)



급격히 감소하여 4, 5세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군집 2도 2세의 높은 발생률이 감소하여 4세부터, 군집 3은 중간 정도의 발생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나 5세에도 낮은 발생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4의 경우 2세의 낮은 발생률이 3, 4, 5세에도 지속성을 보이고 있고, 군집 5는 2세에는 낮은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여 5세에 이르러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군집 평균값 사이의 차이를 검증한 ANOVA 분석결과는  $p < .001$ 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 2. 연령 증가에 따른 5개 문제행동 군집 특성

### 1) 매우 높은 발생률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군집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 교사들은 2, 3, 4, 5세에 군집 1의 문제행동들이 81.9%, 14.9%, 2.7%, 0.5%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2세의 높은 발생률이 매우 급격히 감소하여 3세에는 매우 낮은 발생률을 보이며 4, 5세경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비지속성을 보이는 문제행동군이다.

일반적으로 군집 1에는 걸음마기의 유아들이 자기의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한 교사 및 또래를 향한 미성숙한 행동(울어버리거나 바닥에 드러눕기, 요구 충족 안 되면 울기, 교사 따라다니기와 매달리기), 관철이 안되었을 때 자기 및 또래를 향한 부적절한 행동(친구 깨물기, 자주 손가락 빨기), 그리고 낮은 주의 집중 문제가 포함된 행동 군이다.

### 2) 높은 발생률에서 감소하는 군집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 교사들은 군집 2의 행동들이 2, 3, 4, 5세에 59.4%,

24.8%, 10.0%, 5.8%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2세의 높은 발생률이 3세부터 급격히 감소하기는 하나 4세에 이르러서도 낮은 비율로 나타나며 5개 군집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행동들이 포함되는 군이다.

이 군집에는 교실 문화 부적응 행동(교실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배회하기, 이유 없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기, 교실 여기 저기 뛰어다니기, 소리 지르기, 자기 물건 정리 정돈하지 않기, 놀이감 망가뜨리기), 교사를 향한 미성숙한 행동(어린 말투 사용하거나 칭얼거리기, 교사의 많은 관심과 지원 요구, 또래 대신 교사와 상호작용하기), 또래를 향한 부적절한 행동(친구 때리기, 친구에게 놀이감이나 자료 던지기, 또래와 물건 함께 사용하지 않기), 그리고 또래 회피 행동(극적 놀이에 참여하지 않기, 교사나 친구에게 말 걸지 않기) 등이 포함된다.

### 3) 중간 수준의 발생률에서 감소하는 군집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 교사들은 군집 3의 행동들이 2, 3, 4, 5세에 42.8%, 29.5%, 15.1%, 12.6%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2세의 중간 수준의 발생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나 5세에 이르러서도 일부 유아에게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군집에는 적극적인 교실 활동 방해 행동(일부러 물건 떨어뜨려 소리내기, 친구 건드리거나 소음 내어 대집단 활동 방해하기), 교실 규칙 위반 행동(위험한 물건 가지고 놀거나 높은 데 올라가기, 물건 마구 버리거나 낭비하기), 또래 방해 행동(친구 작품 망가뜨리기), 교실 활동 기피 행동(자기 자극 행동, 한 가지 놀이 지속적으로 하기, 대집단 시간에 말하지 않거나 수줍어하기)이 포함된다.

&lt;Table 5&gt; Cluster 2 : Decreased rapidly from high occurrence rate

N(%)

Item	Behaviors	2 yrs.	3 yrs.	4 yrs.	5 yrs.
25	Seeking attention and help	159 (65.2)	59 (24.2)	20 (8.2)	6 (2.5)
29	Nonparticipation in social play	157 (64.9)	47 (19.4)	24 (9.9)	14 (5.8)
38	Not organized of their thins	153 (62.7)	57 (23.4)	21 (8.6)	13 (5.3)
13	Leaving the classroom	151 (62.4)	60 (24.8)	18 (7.4)	13 (5.4)
18	Breaking toys	151 (61.6)	63 (25.7)	25 (10.2)	6 (2.4)
3	Throwing objects at others	150 (61.0)	71 (28.9)	18 (7.3)	7 (2.8)
14	Running aimlessly around the classroom	150 (61.0)	71 (28.9)	14 (5.7)	11 (4.5)
28	Nonparticipation in activity	150 (61.5)	70 (28.7)	20 (8.2)	4 (1.6)
16	Shouting in the classroom	146 (60.1)	59 (24.3)	26 (10.7)	12 (4.9)
34	Infrequent dramatic play participation	145 (60.2)	42 (17.4)	29 (12.0)	25 (10.4)
21	Pouting	137 (55.9)	71 (29.0)	24 (9.8)	13 (5.3)
23	Baby talk	137 (55.9)	72 (29.4)	29 (11.8)	7 (2.9)
7	Nonsharing	136 (56.0)	60 (24.7)	26 (10.7)	21 (8.6)
33	Infrequent large muscle activity	130 (55.3)	40 (17.0)	30 (12.8)	35 (14.9)
1	Hitting	128 (53.1)	75 (31.1)	28 (11.6)	10 (4.1)
35	Talking infrequently	125 (53.0)	46 (19.5)	36 (15.3)	29 (12.3)
	Total	2305 (59.4)	963 (24.8)	388 (10.0)	226 (5.8)

&lt;Table 6&gt; Cluster 3 : Decreased gradually from medium occurrence rate N(%)

Item	Behaviors	2 yrs.	3 yrs.	4 yrs.	5 yrs.
37	Climbing high places & Playing with dangerous things	119 (49.2)	55 (22.7)	29 (12.0)	39 (16.1)
39	Overeating and finicky eating	109 (45.2)	58 (24.1)	41 (17.0)	33 (13.7)
18	Destroying the work of others	108 (44.8)	89 (36.9)	28 (11.6)	16 (6.6)
16	Dropping Objects to create noise	106 (45.1)	75 (31.9)	33 (14.0)	21 (8.9)
27	Self stimulation	103 (42.7)	82 (34.0)	31 (12.9)	25 (10.4)
13	Disrupting group time	102 (41.6)	73 (29.8)	41 (16.7)	29 (11.8)
32	Playing with only one toy	101 (41.9)	54 (22.4)	36 (14.9)	50 (20.7)
31	Shyness at group time	90 (37.7)	75 (31.4)	43 (18.0)	31 (13.0)
19	Wasting paper	88 (36.5)	79 (32.8)	45 (18.7)	29 (12.0)
	Total	926 (42.8)	640 (29.5)	327 (15.1)	273 (12.6)

## 4) 낮은 발생률이 유지되는 군

위의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 교사들은 군집 4의 행동들이 2, 3, 4, 5세에 26.9%, 30.0%, 25.0%, 18.1%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2세 때 낮은 발생률을 보이지만, 3,4,5세에도 염려할 정도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문제행동군에는 자신을 향한 자위행동, 친구에게 고통주기(머리 잡아 당기기, 찌르기 등)가 포함된다.

## 5) 낮은 발생률에서 증가하는 군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 교사들은 군집 5의 행동들이 2, 3, 4, 5세에 3.9%, 14.6%, 23.3%, 58.2%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2세 때에는 아주 소수의 유아에게만 나타나나 점차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하여 5세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행동군이다. 이 군집에는 주로 또래를 향한 부적절한 언어를 매개로한 행동이 포함된다.

<Table 7> Cluster 4 : Maintained low occurrence

N(%)

Item	Behaviors	2 yrs.	3 yrs.	4 yrs.	5 yrs.
4	Hurting others	65 (26.9 )	74 (30.6)	63 (26.0)	40 (16.5)
30	Self-consolation	63 (26.9)	69 (29.5)	56 (23.9)	46 (19.7)
<b>Total</b>		128 (26.9)	143 (30.0)	119 (25.0)	86 (18.1)

<Table 8> Cluster 5 : Increased from very low occurrence

N(%)

Item	Behaviors	2 yrs.	3 yrs.	4 yrs.	5 yrs.
9	Stealing & lying	14 (5.9)	55 (23.1)	59 (24.8)	110 (46.2)
6	Name-calling	11 (4.6)	42 (17.5)	59 (24.6)	128 (53.3)
11	Bullying & threatening	10 (4.2)	21 (8.8)	47 (19.7)	160 (67.2)
8	Bribery	7 (2.9)	27 (11.2)	56 (23.2)	151 (62.7)
5	Inappropriate language	5 (2.1)	29 (12.3)	57 (24.2)	145 (61.4)
<b>Total</b>		47 (3.9)	174 (14.6)	278 (23.3)	694 (58.2)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38개 문제행동이 2, 3, 4, 5세의 어느 연령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응답에 근거하여 연령별 문제행동의 발생률 변화 유형 및 유형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첫째, 보육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영유아들이 유아교실에서 보이는 38개의 문제행동은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률이 감

소하는 군집 3개, 유지되는 군집 1개, 그리고 증가하는 군집 1개로 구분되었다.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률이 감소하는 군집에는, 매우 높은 발생률에서 매우 급격히 감소하는 군집 1, 높은 발생률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군집 2, 그리고 중간 정도의 발생률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군집 3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낮은 발생률이 유지되는 군집 4와 낮은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군집 5로 구분되었다. 38개의 문제행동 중 군집 1, 2, 3에 포함되는 31개의 문제행동은 연령 증가에 따라 발생률이 급격히 혹은 점진

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문제행동이 2세에 최고점에 달하다가 점차 감소한다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 (Campbell et al., 2006; Gilton & Shaw, 2004) 와 같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세에는 **군집 1** 의 문제행동이, 5세에는 **군집 5**의 문제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3, 4세에는 모든 군집의 문제행동이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둘째, 군집 1**은 3세, **군집 2**는 4세, 그리고 **군집 3**은 5세에 이르러 문제행동 발생률이 비지속성을 보이는 안정세가 나타났다. **군집 1**이 3세경에, **군집 2**는 4세경에, **군집 3**은 5세경에 이르러 발생률의 비지속성을 보이는 것은 영유아들이 적절한 교사 및 또래와 상호작용 방법, 교실 문화, 그리고 또래 문화 내에서 좀 더 수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 방식을 습득해 나가는 순서를 나타낸다고 추론된다. 즉 영유아는 자신의 요구 관철을 위해 ‘떼쓰기’나 ‘깨물기’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 철회를 3세경에 가장 먼저 습득하고, 자신의 욕구를 ‘떼쓰기’ 대신 ‘관심이나 지원 요구’ 등과 같이 좀 더 완화된 방법으로 표현하기, ‘교실 뛰어다니기와 소리 지르기’와 같은 교실 문화 부적응 행동을 4세경에 철회하고, 그 후 ‘일부러 물건 떨어뜨려 소리내기’ 등과 같은 고의적인 교실 방해 행동 및 또래 방해 행동, 그리고 ‘자기 자극 행동’이나 ‘대집단 시간에 말하지 않거나 수줍어하기’ 등과 같은 교실 및 또래 문화 부적응 행동을 5세에 이르러서 철회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셋째, 낮은 비율로 5세까지 지속성을 보이는 군집 4**에는 자기, 또래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행동(자위 행동하기, 친구에게 고통주기)이 포함된다. 병원에 의뢰된 유아를 24개월부터 12세까지 장기 추적한 Shaw, Lacourse와 Nagin(2004) 및 Campbell et al.(2006)의 연구에

서 높은 발생률이 아니고 낮은 발생률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발생률이 유지되는 유아가 더 위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아의 경우 12세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단순히 ‘친구 때리기’와 달리 친구 찌르거나 넘어뜨리기와 같은 ‘고통주기’는 전 연령에 걸쳐 20%대를 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반사회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을 조기 발현형(early on-set)이나 평생 지속형(life-course persistent)라고 부르고 있는데 (Broidy et al., 2003 : Campbell, 2006 : Moffitt & Caspi, 2001), **군집 4**의 유아들이 이 유형에 속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군집 5**는 5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또래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행동이 주를 이루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가능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위의 논의에 따른 지도 방법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Smith 외(2004)의 2세 때의 유아의 불순응 행동과 외현화 문제가 4세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Rubin, Burgess, Dwyer와 Hastings (2003)의 2세 때 높은 공격적 행동을 보인 유아가 2년 후에도 더 많은 외현화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일반적으로 유아들이 문제행동 발생의 비지속성을 보이는 시기에도 특정 유아가 지속성을 보인다면 교사는 이러한 특정유아의 문제행동 발생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별히 군집 1의 문제행동들이 3세 이후에도, 군집 2의 문제 행동들이 4세 이후에도, 군집 3의 문제행동들이 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지도 방법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즉 교사는 영유아가 교사, 놀이감, 그리고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관심**

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실에서 **군집 1**의 ‘바닥에 드러눕기’나 ‘친구 깨물기’와 같은 행동은 걸음마기 영아들이 언어 발달의 미숙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군집 2**의 경우, 영유아가 ‘관심 끌기’나 ‘어린아이 말 사용하기’와 같은 행동을 보일 경우, 원인이 교사에 대한 관심 추구에 기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유아가 바르게 행동했을 때 미리 칭찬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행동 방식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Denno, Carr, & Bell, 2010). 그리고 교실 문화 부적응 행동(배회하기, 뛰어다니기, 소리 지르기 등)과 또래를 향한 부적절한 행동(친구 때리기, 친구에게 놀이감이나 자료 던지기 등)은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활동 제공 및 선호 활동 제공을 하거나 교실 규칙을 명백하게 전달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애유아나 다문화 유아의 경우 그림 시간표나 전이시 명백한 신호를 줌으로서 전이시의 기다리는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뛰어 다니기’, ‘소리 지르기’와 같은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Denno et al., 2010).

**군집 3**의 ‘일부러 물건 떨어 뜨려 소음 발생하기’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교실 및 또래 방해 행동과 교실 규칙 위반 행동이다. 유아가 이러한 고의적인 방해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일 때, 교사는 유아의 이러한 행동 목적을 연속적인 관찰과 부모 면담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그 후 적합한 대체 행동 지도하거나 스캐폴딩을 통해 또래와의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외현적 행동만이 아니라 **군집 3**의 또래 문화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기피나 활동 비 참여행동과 같은 내재화 행동(대집단 활동 시 말하지 않지, 혼자 지속적

으로 놀기, 지나치게 수줍어하기, 자기 자극 행동, 또래에게 말 걸지 않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사들은 다른 유아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공격적 행동, 방해 행동, 욕구조절과 관련된 기본생활 습관과 관련된 행동, 위험한 행동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경력이 높은 교사는 초임 교사와 달리 사회적 회피나 비참여 행동과 같은 유아의 내재화 행동 지도의 필요성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J. Kim, 2002 : K. Kim, 2008; S. Kim, 2000; Song, 2009). 또한 이러한 유아는 학교 폭력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둘째, 군집 4**의 친구에게 고통주기, 자위행동 하기의 문제행동은 2세의 20% 이상의 발생률이 5세까지도 지속성을 나타내었다. ‘친구에게 고통주기’와 같은 행동은 발생 빈도가 낮다 하더라도 한 번의 발생이 교실과 또래에게 안전 문제와 다른 유아에게 불안감을 가져다주므로 교사 지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Durand, 1990). 유아 가까이에서의 교사 근접 통제는 상황이 다소 과격해질 경우 조기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교실 유아들이 방해받지 않게 할 수 있다(Denno et al., 2010). **군집 5**는 5세에 이르러 폭발적인 발생률을 보였는데, Campbell 외(2006)는 5세에 이르러 또래와의 협상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유아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이라고 하였다. 또래와의 협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이 시기의 발달과업인 친구와 우정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Essa, 2007). 교실에서 특정 유아를 목표 삼아 공격적인 행동과 욕하거나 놀린다면, 교사는 친구 관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아들끼리 놀이 집단을 구성하거나 욕하거나 놀리기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유아들이 대응하도록 유아들과 함께 대본화된 반응을 개발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5개의 문제행동군을 연령에 따라 연령 특징적인 문제행동과 지도와 예방 및 중재가 필요한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언급한다면, **군집 1, 군집 2, 군집 3**의 문제행동이 각각 3, 4, 5세 경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더 이상 연령 특징적 문제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군집 4**의 경우에는 아동기 후기까지 지속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관심 있는 지도가 필요한 문제행동군이다. 발생 빈도나 심각도가 높은 경우 의사와 같은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군집 5**의 경우 5세의 연령 특징적인 경향이 많은 문제행동군이다. 이러한 행동이 연령 특징적인가 혹은 매우 심각하게 지속되는가는 초등학교 시기와의 연계된 추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다.

영유아 문제행동의 연령 증가에 따른 비속성과 비지속성은 부모, 교사, 발달심리학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의 커다란 관심사이다. 유아의 행동이 문제행동인지 아닌지를 교사가 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교사 개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교사들은 유아 문제행동 판단을 유보하기도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문제행동의 발달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의 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자주 참조하는 신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의 이정표와 같이 문제행동을 판단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선별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느 문제행동군의 어떤 문제 행동들이 발달기에 나타나는 연령 특징적인 행동이고, 어떤 문제 행동이 교사의 관심과 사례 깊은 지도가 필요한 행동이고, 어느 문제 행동이 좀 더 예방과 중재를 전문가와 함께 계

획해야 하는 행동인가를 교사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잊점을 교사,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교사 측면에서**, K-CBCL 등과 같은 문제 행동 평가도구를 직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관찰을 통해서 유아의 염려되는 행동이 연령 특징적 문제인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문제인지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별히 예방이나 중재 전략을 계획해야 할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령 특징적인 행동일 때 교사는 과도하게 유아를 통제하지 않으므로 교사-유아간의 관계의 질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부모 측면에서**, 부모는 교사와 함께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상담을 함으로써 좀 더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가 증가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문제행동 측정 도구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연령, 성별 등의 인구학적 배경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는 판별적 분석 연구가 아닌 다양한 문제행동의 변화 유형군을 탐색하고자 군집 분석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사들의 응답에 기반하였으므로, 좀 더 신뢰도가 높은 객관적 자료로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부모 면담과 직접적인 유아 행동 관찰을 통한 장기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교실 현장에 적용할 때 문제행동 발생률에는 남녀 차와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문제 행동의 연령증가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고려한 효과적인 문제행동 교수 전략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References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The classification of chil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analysis of empirical efforts. *Psychological Bulletin, 85*, 1275-1301.
- Achenbach, T. M., Edelbrock, C., & Howell, C. T. (1987).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of the behavioral/emotional problems of 2-and 3-year-ol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4), 629-650.
- Broidy, L. M., Nagin, D. S., Tremblay, R. E., Bates, J. E., Brame, B., Dodge, K. A., & Vitaro, F. (200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hood disruptive behaviors and adolescent delinquency : A six-site, cross-n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22.
- Campbell, S. B. (1995).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1), 113-149.
- Campbell, S. B. (2006).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 Clin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New York : Guilford Press.
- Campbell, S. B., Shaw, D. S., & Gilliom, M. (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3), 467-488.
- Campbell, S. B., Spieker, S., Burchinal, M., & Poe, M. D. (2006). Trajectories of aggression from toddlerhood to age 9 predict academic and social functioning through age 12.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8), 791-800.
- Corsaro, W. A. (1988). Peer culture in the preschool. *Theory into Practice, 27*(1), 19-24.
- Denno, D. M., Carr, V., & Bell, S. H. (2010). *Addressing challenging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settings : teacher's guide*. Baltimore, Maryland : Paul Brookes publishing Co.
- Dewey, J. (1948).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Boston : Bacon Press.
- Dodge, K. A. (199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Doss, S., & Reichle, J. (1989). Establishing communicative alternatives to the emission of socially motivated excess behavior : a review.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4*, 101-112.
- Durand, V. M. (1990). *Severe behavior problems : A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approach*.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Essa, E. (2007). *What to do when... practical guidance strategies for challenging behavior in the preschool*. New York : Thomson Delmar Learning.
- Go, H. (2008). Development of a problem behavior rating scale for young children Aged 3 to 5.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5*(4), 121-152.
- Haapasalo, J., Tremblay, R. E., Boulerice, B., & Vitaro, F. (2000). Relative advantages of person and variable based approaches for predicting problem behaviors from kindergarten assessment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6*(2), 145-168.
- Hartup, W. W. (1974). Aggression in childhood : development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9*(3), 336-341.



- Hwang, H. J., Yun M. H., Kang, S. B., Seong, N. U. & Hwang, H. S. (2002). The development of a diagnostic test for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2(1), 73-88.
- Kaiser, B., & Raminsky, J. S. (2003). *Challenging behavior in young children : Understanding, preventing, and responding effectively*. New Jersey : Pearson Education. Inc.
- Kang, J. H. (2008).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pre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J. W., & Kim, S. J. (2006). The effect of children's maladjusted behaviors on teaching stress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Childhood*, 27(1), 17-30.
- Keenan, K., & Wakschlag, L. S. (2000). More than the terrible twos : The nature and severity of behavior problems in clinic-referred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1), 33-46.
- Keyes, C. L. M. (2005). Chronic physical conditions and aging : Is mental health a potential protective factor. *Aging International*, 30, 88-104.
- Kim, S. J. (2007). The research on the teacher's stress toward problem behaviors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Y. (2000). Inappropriate behavior of children and responsive strategies of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W. (2010). Practical Usage of SPSS AMOS. Hakjisa : Seoul.
- Kim, Y. H. (2007). Determinant of teachers' quality of instruction : Focusing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nd protective factors of quality of instruc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7(6), 213-237.
- Kookminilbo (2013.7.10). Bit just for fun... teacher only say, don't do that. Seoul : Korea.
- Kwon, J. Y. (2012).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young children's challenging behaviors*. in Spring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2. 4. 25, Seoul : JoonAng University.
- Ladd, G. W., Herald, S. L., & Kochel, K. P. (2006). School readiness : Are there social prerequisit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115-150.
- Lee, B., & Park, H. J. (2012). Self quality of life and physical, psychosocial health state in Korean school-age children : Focus on children with chronic diseases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Childhood*, 33(1), 1-15.
- Lee, G. S., & Chung, H. H. (2008). Short-term longitudinal exploration on change processes of problem behaviors in early school aged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2), 97-118.
- Lee, K. M., & Kang, J. W. (1999). Perception of early teachers related to maladjusted behavior children. *Journal of Infan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2, 165-180.
- Lee, K. S., Shin, Y. J., Chun, Y. J., & Park, J. A. (2004). The characteristics of behavior problem

- among young children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4), 53-73.
- Lee, S. J., & Yoo, S. O. (2012).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variables on children's challenging behaviors : Focusing on domestic articl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nd Review*. 16(6), 127-156.
- Lee, H. S., & Lim, J. H. (2013). *SPSS 20.0 manual*. Jyphyunjae : Seoul.
- Mash, E. J., & Wolfe, D. A. (2002). *Abnormal child psychology* Belmont : Wadsworth.
- Ministry of Education (2005). *Primary school violence prevention measures (2005~2009)*. Seoul, Korea.
- Ministry of Education (2010). *Secondary school violence prevention measures (2010~2015)*. Seoul, Korea.
- Ministry of Education (2012). *Improving teacher recruitment system*. Seoul, Korea.
- Minist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2). *Psychology · emotional healing service innovation for children with challenging behavior* (1st year). Seoul, Korea.
- Moffitt, T. E., & Caspi, A. (2001). Childhood predictors differentiate life-course 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pathways among males and femal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2), 355-375.
- New, R. S., & Cochran, M. (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 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Santa Barbara. CA : Praeger Publishers.
- Reid, I. (1993). Prevention of conduct disorder before and after school entry : relating interventions to developmental finding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243-262.
- Rubin, K. H., Burgess, K. B., Dwyer, K. M., & Hastings, P. D. (2003). Predicting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s from toddler temperament, conflict, and maternal nega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164-176.
- School of Public Health Agency (2006). From [http://www.eductaion.com/reference/article/what is Challenging-behaviors](http://www.eductaion.com/reference/article/what%20is%20Challenging-behaviors), Extracted 2012.3.15.
- Shaw, D. S., Lacourse, E., & Nagin, D. S. (2005).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onduct problems and hyperactivity from ages 2 to 10.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9), 931-942.
- Smith, C. L., Calkins, S. D., Keane, S. P., Anastopoulos, A. D., & Shelton, T. L. (2004). Predicting stability and change in toddler behavior problems : Contributions of maternal behavior and chil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40(1), 29-41.
- Song, N. R. (2012). Study on beginning teacher's perceptions and difficulties regarding instructions for young children with problematic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Y, J. (2009). The aspects of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and the teacher's guidance of problem behaviors in a full-day kindergart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un, Korea.
- Souse, D. A. (2011). *How the brain influences behavior*. Kim, Y. M. (translation). Seoul : Sigma press (original published 2009).

- Sung, W. H. (2006). *Management information statistical analysis*. Seoul : Hakmunsa.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Vygotsky, L. (1976). *Mind in Society : The development of higher mental proces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Yune, H. S., Kang, J. H., & Oh, K. J. (2011). Brief Report : Stability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ers : A one-year follow-up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2), 617-627.

---

2013년 8월 29일 투고, 2013년 12월 4일 수정  
2013년 12월 17일 채택